

배롱나무 피해 ‘맵시흑나방’ 방제연구 한창

신안서 최초 발생...산림·생활권 위협
피부 자극 유발 가루로 인체 피해 우려
전남도산림연구원, 예찰·도민 신고 당부

전남도산림연구원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의 배롱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알레르기 피부 증상 유발 원인이 되는 맵시흑나방의 발생 양상과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맵시흑나방 유충은 길이 약 15mm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먹는다. 이 때문에 잎이 갈변하고 꽃은 정상적으로 피지 못하는 등 경관상 큰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벌레집을 지으면서 발생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전남도산림연구원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의 배롱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알레르기 피부 증상 유발 원인이 되는 맵시흑나방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맵시흑나방 번데기(왼쪽)와 피해를 입는 배롱나무 모습.

일으킬 수 있다. 번데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루가 나무에 남아 인체에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의 배롱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알레르기 피부 증상 유발 원인이 되는 맵시흑나방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맵시흑나방 번데기(왼쪽)와 피해를 입는 배롱나무 모습.

맵시흑나방은 2022년 신안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피해가 보고된 이후 지속 확산하고 있다. 공원과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 집중 피해가 나타

나 가로 경관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맵시흑나방의 생활사, 발생 주기, 기주 수목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방제약제 선발시험(농약작권등록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를 선정해 심의 중이다. 해당 약제는 조만간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배롱나무에서 맵시흑나방 유충, 번데기, 고치, 또는 피해 흔적이 발견되면 직접 접촉을 삼가고 즉시 해당 시·군이나 산림연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연구원도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발병해충은 천적이 적고 적응력이 뛰어나 방제가 쉽지 않다. 특히 맵시흑나방처럼 피해 특성과 알레르기 유발 요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해충은 신속한 정보 수집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김재정 기자

전남농기원 ‘K-커피 브루잉 대회’ 성료

지역 원두 사용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상자 국가대표 본선 진출 자격 확보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3일간 ‘2025국제농업박람회’ 내 마련된 ‘K-커피 홍보관’에서 ‘2025 전남 K-커피 브루잉 대회(ACU 브루잉 챔피언십)’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산 커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전문 바리스타 간 기술 교류를 통한 K-커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열렸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사)아시아커피연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커피 산업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이 함께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바리스타 30명이 출



전해 자신만의 기술과 커피 철학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국제심사위원 2명을 포함한 국내외 커피 전문가 13명이 맡아 공정하

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싱글 추출(300ml) 종목으로 경합했으며 고흥·화순산 원두 2종이 지

정 원두로 사용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산 원두가 가진 품미와 품질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지역 커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대회 결과, 금상은 강시운 선수가 차지했으며 은상은 권현주 선수, 동상은 국승일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

수상자에게는 전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그라인더, 색도계, 드립포트 등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수상자 전원에게는 2025년 KCBC(국가대표 선발전)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져 향후 국제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최정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원두의 품질과 바리스타들의 기술력이 한층 입증됐다”며 “향후 전남 커피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K-커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농협-광주교통공사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28일 “광주교통공사 및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와 함께 영농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일손 돕기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우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들의 노고를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여자들은 광주 북구의 들깨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농촌체험장인 분토농업주말농장으로 이동해 허브작목 체험을 통해 농촌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광주본부와 광주교통공사는 지난해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을 위해 ‘행복농촌이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 기관은 농촌일손돕기,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촌에서 휴가 보내기 등 다채로운 교류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농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안태호 기자

건답직과 벼 수확 시연회

전남농협, 생산비 절감 효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9일 “나주시 동강면 재배기술 시범포에서 ‘마른논 씨레질 및 건답직과 벼 수확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조합장,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벼 재배 신기술의 효과와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마른논 씨레질과 건답직과 기술은 영농

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 농업 현장의 현실적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농협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농심전심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농업·농촌의 가치 증대와 농업인의 실익·소득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오늘 시연회는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심전심운동을 중심으로 혁신기술 보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1차 15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2차 6가구>
입주완료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 +관리사 +휴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